

현안과 과제

- 2024년 한국 경제 희망요인
- 적극적인 기회 활용으로 경기 회복력을 높여야 할 때

목 차

■ 2024년 한국 경제 희망요인

- 적극적인 기회 활용으로 경기 회복력을 높여야 할 때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2024년 한국 경제 희망요인	2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저 자 :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경 제 연 구 실 : 이 형 석 연 구 위 원 (2072-6247, walden0230@hri.co.kr)

신 지 영 선임 연구원 (2072-6240, jyshin@hri.co.kr)

노 시 연 선임 연구원 (2072-6248, syroh@hri.co.kr)

Executive Summary

□ 2024년 한국 경제 희망요인

- 적극적인 기회 활용으로 경기 회복력을 높여야 할 때

■ 개 요

최근 국내경제는 경기 저점을 형성해 가는 과정으로 판단되나, 여전히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둘러싸여 있어 경기 회복세를 견인할 수 있는 강한 요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최근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다소 긍정적인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올해 국내경제의 견실한 회복을 위한 조건이자 향후에도 지속성장 기반이 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희망요인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글로벌 피벗, ② 경제주체의 적응력 확대, ③ 내수까지 퍼지는 수출의 온기, ④ 높은 문화의 힘, ⑤ 세일즈 외교 성과 가시화 등의 5가지다.

< 현대경제연구원이 선정한 2024년 한국 경제 희망요인 >

주제	내용
1. 글로벌 피벗 (pivot; 통화정책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으로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
2. 경제주체의 적응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간 지속된 고물가·고금리에 대한 경제주체의 적응력 확대가 향후 경기 회복의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
3. 내수까지 퍼지는 수출의 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 경기의 회복이 제조업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투자심리 및 고용 기대를 높이는 등 내수 선순환 고리 형성 계기로 작용
4. 높은 문화의 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국가 위상 제고, 수출 및 관광객 증가 등과 같은 파생효과로 연결, 경기 회복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
5. 세일즈 외교 성과 가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일즈 외교의 성과 현실화 노력이 국내경제는 물론 경제·산업 안보를 뛰어넘어 외교·국방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2024년 한국 경제 희망요인

① 글로벌 피벗(pivot; 통화정책 전환)

글로벌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으로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글로벌 주요국은 시기와 정도에 차이는 존재하나, 물가 상승세 완화, 경기둔화 가능성 우려 등 여건상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국은 물가상승세 둔화가 확인된 가운데 장기간 지속된 고금리 누적효과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면서 2분기 내 금리인하 개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EU 등 그 외 주요국도 상기 여건상 시장의 금리인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주요국 금리인하는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투자심리 개선 및 외국인 자본 유입을 통해 국내 금융·외환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출 증대는 물론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기업 및 가계 투자심리 회복을 통해 실물경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으로 국내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최근 높아진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시스템 구축 및 국내경제의 기초 체력 강화 등의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② 경제주체의 적응력 확대

장기간 지속된 고물가·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경제주체의 적응력이 확대된 점이 향후 경기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달라진 경제 환경에 직면한 가계와 기업이 차입 등 의사결정에 이를 반영하면서 재무적 건전성을 확보하는 등 적응력이 확대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는 고금리 여건에서도 부채를 줄이면서 재무적 건전성을 개선하였으며, 고물가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평균소비성향(70.7%)을 코로나19 이전(72.7%)에 근접한 수준까지 회복하였다. 기업의 경우에도 경영환경 악화 속에서도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 비율을 낮추는 등 안정성이 개선되었으며, 최근 향후 생산전망과 설비투자전망이 상승하는 등 투자 확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가계 및 기업의 경제운용 여건이 안정됨에 따라 향후 내수 회복의 기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민간 경제주체의 경제 활력 극대화를 위해서는 통화정책 및 정부 재정정책 등 측면에서 적절성과 예측력을 높이는 등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③ 내수까지 퍼지는 수출의 은기(Ripple effect)

수출 경기의 회복이 제조업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투자심리를 회복시키는 등 투자 및 고용여건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에는 글로벌 제조업 경기의 개선과 함께 작년에 위축되었던 교역 부문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제조업의 수출액 비중은 2023년 기준 99.5%(산업연구원, ISTANS)로, 수출 경기가 회복되면서 제조업 기업의 수익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 인해 기업의 투자심리가 회복되면서 설비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의 노동 수요도 확대되면서 작년에 부진했던 제조업 분야의 고용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출 경기의 개선이 내수 전반으로 파급되는 효과를 증폭시키기 위해 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통한 수출 재화의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하는 동시**

에 수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해 수출 회복의 혜택이 기업 전반에 확산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④ 높은 문화의 힘

백범 김구의 《나의 소원》 중 ‘높은 문화의 힘’이 실현되며 콘텐츠 산업이 2024년 한국경제의 희망으로 부상하고 있다.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국가 위상 제고, 수출 및 관광객 증가 등 파생 효과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150조 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매출을 경신하였으며, 콘텐츠 산업 수출액 또한 역대 최대인 132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콘텐츠 산업의 성장은 그 자체로서 경제 성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국가 인지도 및 호감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바탕으로 소비재, 관광 등 관련 산업의 성장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24년에도 콘텐츠와 연관 산업의 성장이 기대되는 가운데 이들 산업은 올해 전반적인 경제 회복의 주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콘텐츠 산업은 소비재 수출, 관광객 유치 등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한류 확산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⑤ 세일즈 외교 성과 가시화

그동안의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맺은 국가 간 협력 현안에 대한 관리 및 후속사업 추진 등을 통해 수출 및 투자 유입 증대를 꾀함으로써 국내경제는 물론 경제산업 안보를 뛰어넘어 외교·국방·안보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상외교 등을 통해 맺은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와 계약 등이 현실화될 경우, 수출 증가를 통한 외수 경기 가속화 및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만 하더라도 약 600억 달러 내외 수준의 외국인 투자 신고와 계약, 수주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되고, 수백 건에 달하는 각종 MOU 체결을 통해 향후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한편, 미국과의 차세대 핵심신용기술 대화 신설 및 공급망 산업대화나 캐나다와의 핵심광물 공급망·청정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안보 협력 MOU 등과 같이 세일즈 외교를 통해 맺은 MOU는 경제·산업 안보 강화를 통해 외교·국방 안보 기반을 확충하는 수단으로 동시에 활용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따라서 정상외교 등을 포함한 세일즈 외교가 경제적 성과 창출은 물론이고 산업 및 기술, 외교, 군사 등 다양한 부문에서 국가 이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후속이행조치와 모니터링 및 민관협력 등의 강화를 통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개요

- 올해 국내경제의 견실한 회복을 위한 조건이자 향후에도 지속성장 기반이 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5가지 '희망요인'을 제시
 - 최근 국내경제는 경기 저점을 형성해 가는 과정으로 판단되나, 여전히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경기 회복세를 견인할 수 있는 강한 요인이 부재
 - 단, 최근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 양상을 비춰볼 때 다소 긍정적인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이에, 국내경제 회복은 물론 향후 지속성장 기반이 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희망요인을 제시
 - 구체적으로는 ① 글로벌 피벗, ② 경제주체의 적응력 확대, ③ 내수까지 퍼지는 수출의 온기, ④ 높은 문화의 힘, ⑤ 세일즈 외교 성과 가시화 등의 5가지임

< 현대경제연구원이 선정한 2024년 한국 경제 희망요인 >

주제	내용
1. 글로벌 피벗 (pivot; 통화정책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으로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
2. 경제주체의 적응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간 지속된 고물가·고금리에 대한 경제주체의 적응력 확대가 향후 경기 회복의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
3. 내수까지 퍼지는 수출의 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경기의 회복이 제조업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투자심리 및 고용 기대를 높이는 등 내수 선순환 고리 형성 계기로 작용
4. 높은 문화의 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국가 위상 제고, 수출 및 관광객 증가 등과 같은 파생효과로 연결, 경기 회복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
5. 세일즈 외교 성과 가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일즈 외교의 성과 현실화 노력이 국내경제는 물론 경제·산업 안보를 뛰어넘어 외교·국방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2. 2024년 한국 경제 희망요인

① 글로벌 피벗(pivot; 통화정책 전환)

○ (의미) 글로벌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으로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됨

- 미국 등 주요국이 연내 금리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 기업 및 가계의 여건 개선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 (내용) 글로벌 주요국은 시기와 정도에 차이는 존재하나, 물가 상승세 완화, 경기둔화 가능성 우려 등 여건상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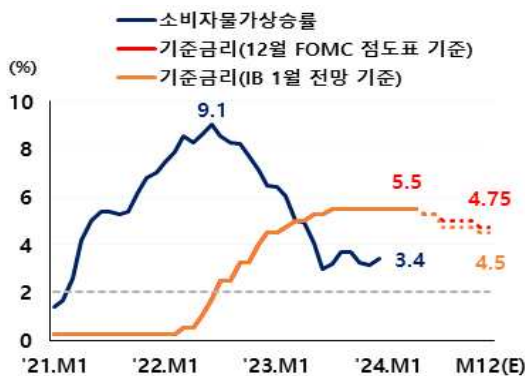
- 미국은 물가 상승세 둔화가 확인된 가운데 장기간 지속된 고금리 누적효과로 연내 경기 하강 국면 진입이 우려되면서 2분기 내 금리 인하 개시 가능성

· 미국의 12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4%, 개인소비지출물가 상승률은 2.6%를 기록하는 등 주요 물가가 물가안정목표(2%)에 근접한 수준까지 하락

· 미국 경제는 2023년 강한 호조를 보이고 안정적인 노동시장을 지속하였으나, 주요 선행지표가 향후 경기 하강을 예고하고 경기침체 확률도 상승하면서) 시장은 2분기 내 금리인하 개시 가능성 전망

- 그 외 주요국도 상기 여건상 시장의 금리인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된 상황

< 미국 물가·기준금리 추이 및 전망 > < 주요국 기준금리 추이 및 전망 >



	'22말	'23말	'24말(E)
유로존	0.0%	4.5%	3.5%
일본	0.0%	0.0%	0.0%
한국	3.25%	3.5%	3.0%
캐나다	4.25%	5.0%	4.0%
영국	3.5%	5.25%	4.25%

자료 : FOMC('23.12), Bloomberg.

주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비 기준.

자료 : 한국은행, Bloomberg.

주 : 전망치는 IB 1월 전망치 평균 기준.

1) 미국의 경기선행지수는 2023년 12월 99.7p로 19개월 연속 기준선(100p)을 하회하고, ISM 제조업 PMI도 12월 47.4p로 위축 국면을 지속. 뉴욕연방은행이 산출하는 경기침체 확률은 2024년 말 62.9%에 달하는 상황.

- 주요국 금리인하는 그 자체로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투자심리 개선 및 외국인자본 유입을 통해 국내 금융·외환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침
 - 금융시장 변동성을 나타내는 VIX지수는 2000년 이후 美 금리인하기²⁾ 중 금융위기인 2008년과 코로나19 위기인 2020년을 제외한 기간에 하락하였음
 - ※ VIX 지수(p) : '00.M12(26.5) → '03.M6(20.4), '19.M6(15.8) → '19.M12(13.7)
 -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동기간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가 각각 235억달러, 65억달러 유입되고, 환율변동성이 하락한 바 있음
 - ※ 원/달러 환율 변동성(%p) : '00.M12(0.6) → '03.M6(0.4), '19.M6(0.4) → '19.M12(0.4)
- 또한, 글로벌 금리 하락은 수출 증대는 물론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기업 및 가계 투자심리 회복을 통해 실물경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미국(18.3%), EU(10.8%) 등 국내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의 금리가 하락할 경우 이들 국가의 수입수요 확대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
 - 또한, 글로벌 금리 하락 시 국내 시장금리가 안정되는 효과가 있어 기업 및 가계 여건 개선에 따른 투자 및 소비 활성화 등 긍정적 영향이 전망됨
 - 한편, 물가안정으로 한국은행의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과거 美 금리인하 시 2~13개월 후행하거나 1개월 선행하여 금리가 인하됨

< 외국인 국내증권투자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주 : 2023년은 1월~11월 누적.

< 시장금리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시사점)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으로 국내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최근 높아진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시스템 구축 및 국내경제의 기초 체력 강화 노력 등이 함께 수반될 필요

신 지 영 선임 연구원 (2072-6240, jyshin@hri.co.kr)

2) '00.M12(6.5%) → '03.M6(1.0%), '07.M8(5.25%) → '08.M12(0.25%), '19.M6(2.5%) → '20.M3(0.25%)

② 경제주체의 적응력 확대

○ (의미) 장기간 지속된 고물가·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경제주체의 적응력이 확대된 점이 향후 경기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됨

- 달라진 경제 환경에 직면한 가계와 기업이 차입, 저축 등 의사결정에 이를 반영하면서 재무적 건전성을 확보하는 등 적응력이 확대된 모습을 보임

○ (내용) 고물가·고금리가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는 재무 건전성과 소비 성향을 회복하고 기업은 안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남

- 2010년대 이후 국내 물가와 금리는 낮은 수준을 지속하였으나, 2021년 긴축 기조 강화로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는 전례 없는 고물가·고금리를 경험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물가안정목표(2%)를 하회하는 낮은 수준이었으나, 2022년 5.1%로 200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 기록

· 시장금리(CD(91일물 기준)) 또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약 1.5%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2년 2.5%, 2023년 3.7%로 대폭 상승하였음

- (가계) 가계는 고금리 여건에서 부채를 줄이면서 재무적 건전성을 개선한 동시에 고물가 장기화에도 평균소비성향을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

· 2023년 3월 말 기준 가계의 금융부채 보유 규모는 2013년 이후 사상 처음으로 감소하고, 원리금 상환 지연 가구 비중(7.2%)도 전년대비(0.2%p) 축소

· 또한, 고물가 여건에서도 평균소비성향을 70%대로 회복한 가운데 소비지출 증가율도 증가세를 유지하였음

< 가구 평균 금융부채 규모 · 증가율 >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 평균소비성향 및 실질소비지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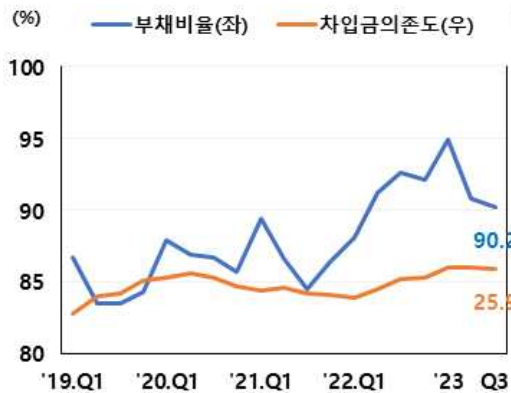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현대경제연구원.

- 2021~2022년 평균 40.8%까지 확대되었던 필수소비지출 비중은 2023년 3분기 38.2%로 하락하여 가계의 소비 운용 여력도 다변화한 것으로 추정³⁾
- 이와 같은 여건 및 소비 흐름의 안정화 속에서 2024년 1월 소비자심리지수가 101.6p로 기준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반등하면서 향후 소비 활성화와 그에 따른 내수 회복 기대감 상승

- (기업) 기업은 경영환경 악화 속에서도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 비율을 낮추는 등 안정성이 개선되었으며, 향후 투자 전망도 상승하는 흐름

- 기업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은 2023년 1분기(95.0%) 이후 2분기 연속 하락하여 3분기 90.2%를 기록하였으며, 차입금의존도((차입금+회사채)/총자산)도 3분기 25.9%로 1분기 및 2분기 26.0%에서 하락하여 안정성 지표가 개선
- 또한, 제조업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BSI에서 향후 생산전망과 설비투자전망 등 향후 투자 확대 가능성과 관련 있는 지표들이 상승하는 추세

< 기업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 >



자료 : 한국은행.
주 : 외감기업 기준.

< 제조업 업황전망BSI >



자료 : 한국은행.

- (시사점) 가계 및 기업의 경제운용 여건이 안정됨에 따라 향후 내수 회복의 기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됨. 다만, 민간 경제주체의 경제 활력 극대화를 위해서는 통화정책과 정부 재정정책 측면에서 적절성과 예측력을 높이는 등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신 지 영 선임 연구원 (2072-6240, jyshin@hri.co.kr)

3) 필수소비지출은 식료품·비주류음료, 주거·수도·광열, 가정 및 가사서비스, 보건 등을 의미하며, 이 비중이 높을 수록 가계가 여가 관련 지출보다 필수 생계비 지출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함을 의미함.

③ 내수까지 퍼지는 수출의 온기(Ripple eff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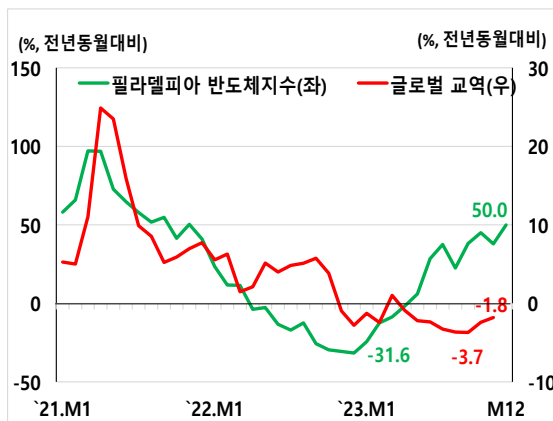
○ (의미) 수출의 회복이 내수까지 파급되는 것을 의미

- 대외 부문의 개선이 제조업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투자심리를 회복시키는 등 투자 및 고용여건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내용) 수출 경기의 회복으로 설비투자과 제조업 부문의 고용도 개선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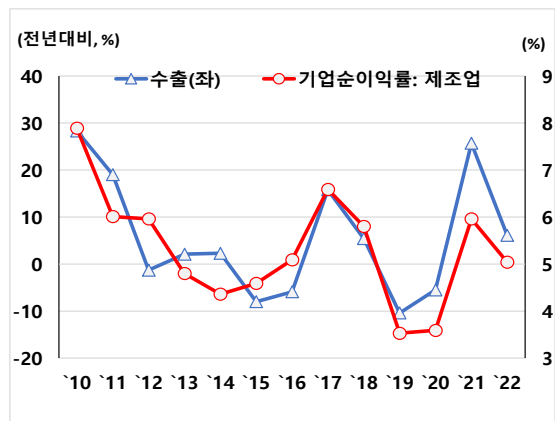
- 글로벌 제조업 경기의 개선과 함께 작년에 위축되었던 교역 부문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제조업의 선행 지표인 중 하나인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Philadelphia Semiconductor Index, 전년동월대비 증감률)는 상승세로 전환
 - 글로벌 교역 증감률(CPB, 전년동월대비)도 작년 8월을 저점으로 완만하게 개선되기 시작
- 수출 경기의 개선과 함께 국내 제조업 기업의 수익성도 제고될 전망
 - 2023년 한국의 수출증가율(전년대비, 산업통상자원부)는 -7.4%로 부진하였으나, 2024년에는 글로벌 교역과 개선에 힘입어 반등할 전망
 - 국내 제조업의 수출액 비중은 2023년 기준 99.5%(ISTANS, 산업연구원)로, 수출 경기가 회복되면서 제조업 기업의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

<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및 글로벌 교역 지수 추이 >



자료 : CPB, Bloomberg.
주 : 교역은 상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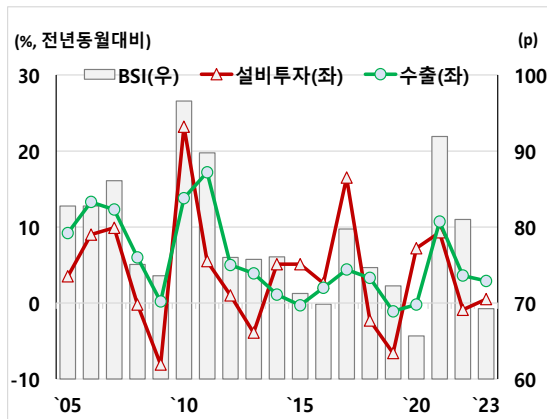
< 국내 수출 및 제조업 기업 순이익률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주 : 수출은 재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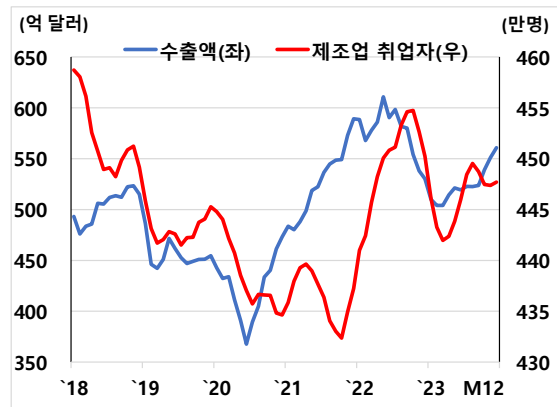
- 제조업 기업의 수익성 제고로 투자심리가 회복되면서 설비투자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 2023년 설비투자 증감률(전년대비, 한국은행)은 0.5%를 기록하며 2022년(-0.9%)에 이어 부진한 양상을 보임
 - 그러나, 외수 부문의 개선과 함께 제조업 기업의 수익성 제고와 투자심리 회복으로 설비투자의 개선도 기대해볼 수 있음
- 또한, 수출 경기 회복과 함께 기업의 노동 수요가 확대되면서, 작년엔 부진했던 제조업 분야의 고용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
 - 2023년 제조업 부문 취업자 수(446만명, 통계청)는 전년대비 4.3만명 감소
 - 그러나, 제조업 기업의 노동 수요가 확대되면서 위축되었던 제조업 부문의 고용 역시 반등할 것으로 예상

< 국내 설비투자, 제조업 BSI 및 수출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주 : 수출은 재화 기준.

< 국내 수출액 및 제조업 취업자 수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주 : 3개월 이동평균 기준.

- (시사점) 수출 경기의 개선이 내수 전반으로 파급되는 효과를 증폭시키기 위해 R&D 지원을 통한 수출 재화의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수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해 수출 회복의 혜택이 기업 전반에 확산 되도록 장려할 필요

이 형 석 연 구 위 원 (2072-6247, walden0230@hri.co.kr)

④ 높은 문화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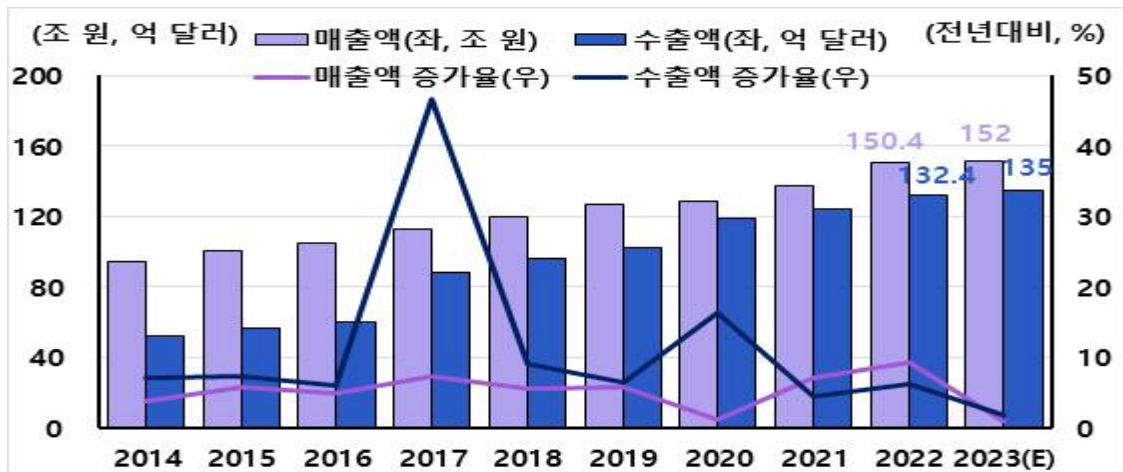
○ (의미) 백범 김구의 《나의 소원》 중 ‘높은 문화의 힘’이 실현되며 콘텐츠 산업이 2024년 한국경제의 희망으로 부상

- ‘높은 문화의 힘’이 2024년 경제 성장 동력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백범 김구의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는 소망이 이루어지며 콘텐츠 산업이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전망

○ (내용)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국가 위상 제고, 수출 및 관광객 증가 등 파생 효과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

- 2022년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150조 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매출을 경신
 -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에는 150조 원을 돌파
 - 2023년에는 전년대비 1.0% 증가한 약 152조 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 전산업 생산이 동기간 0.7%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높은 성장세
- 2022년 콘텐츠 산업 수출액 또한 역대 최대인 132억 4,000만 달러를 기록
 - 2022년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전년대비 6.3% 증가한 132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지속
 - 2023년 총 상품 수출액이 전년대비 7.5% 감소하는 등 수출이 부진하였던 것과 달리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2023년에도 증가세를 유지하여 약 135억 달러(전년대비 1.8%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

< 콘텐츠 산업 매출액 및 수출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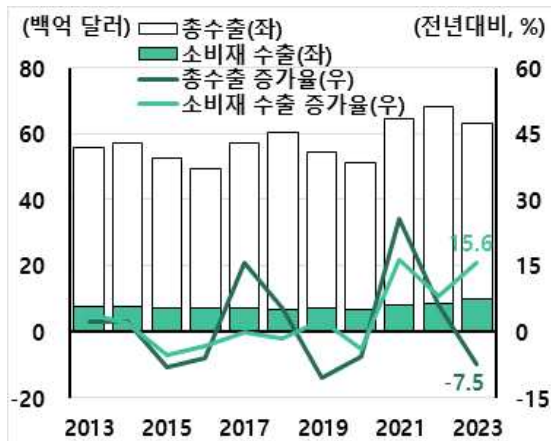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현대경제연구원.

주 : 2023년은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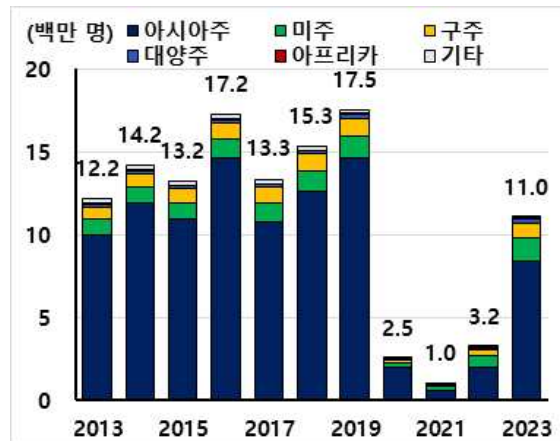
- 콘텐츠 산업의 성장은 그 자체로서 경제 성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국가 인지도 및 호감도 개선에 중요한 역할
 - ‘2022년도 국가이미지 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가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에 현대/대중문화(65.6%)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를 바탕으로 소비재, 관광 등 관련 산업의 성장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큼
 - ‘2023 해외한류실태조사’에 따르면 과반수(57.1%)의 한국 문화콘텐츠 경험자는 한국 콘텐츠 소비가 한국 브랜드 제품과 서비스 구매 및 이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
 - 또한, ‘2023년 외래관광객 조사 3분기 결과’에 따르면 방한 외래객의 35.3%는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 한국 여행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응답
- 2024년에도 콘텐츠와 연관 산업의 성장이 기대되는 가운데 이들 산업은 올해 전반적인 경제 회복의 주축이 될 것으로 예상
 - 콘텐츠 산업의 강세 속에 소비재 수출은 2023년 전년대비 15.6% 증가하며 총수출의 부진을 상쇄, 올해에도 전반적인 수출 회복세에 기여할 전망
 - 또한, 방한 외래객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으며 국적 또한 다양화하는 흐름으로 향후 관광산업의 발전이 기대됨

< 소비재 수출액 및 증가율 >



자료 : 관세청.

< 국적별 방한 외래객 수 >



자료 : 통계청.

- (시사점) 콘텐츠 산업은 소비재 수출, 관광객 유치 등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한류 확산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

노 시 연 선임연구원 (2072-6248, syroh@hri.co.kr)

⑤ 세일즈 외교 성과 가시화

- (의미)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맺은 국가 간 협력 현안에 대한 관리 및 후속사업 추진 등을 통해 수출 및 투자 유입 증대를 꾀함으로써 국내경제는 물론 경제·산업 안보를 뛰어넘어 외교·국방 안보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정상외교를 통해 국가 간 맺은 각종 MOU와 계약 등의 실행 시 수출 증가는 물론 외국인 투자의 국내 유입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
 - 이는 국내 수출기업의 경영 실적 개선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고용 소득 증대 등의 내수 선순환 고리로 이어져 국내 경기 회복 및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내용) 정상외교 등을 통해 맺은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와 계약 등이 현실화될 경우, 수출 증가를 통한 외수 경기 개선 가속화 및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확대에 이어질 가능성이 큼
 - 2023년만 하더라도 약 600억 달러 내외 수준의 외국인 투자 신고와 계약, 수주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4)
 - 아랍에미리트 총 300억 달러 투자 계획, 미국 약 30억 달러 규모의 기업 투자 신고, 카타르 LNG 선박 39억 달러(17척) 계약 등의 세일즈 외교 성과 달성
 - 이외에도 수백 건에 달하는 각종 MOU 체결을 통해 향후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기반이 마련됨
 - 세일즈 외교는 경제·산업 안보 강화를 통해 외교·국방 안보 기반을 확충하는 수단으로 동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
 - 미국과의 차세대 핵심신용기술 대화 신설 및 공급망 산업대화, 캐나다와의 핵심광물 공급망·청정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안보 협력 MOU,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및 카타르 등과 맺은 에너지, 인프라, 항공우주, 미래 기술, 방산 등에서의 MOU 등 세일즈 외교가 경제·산업 안보를 뛰어넘어 외교·국방 안보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4) 이상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경제분야 합의내용을 중심으로 종합 정리한 것임. 이상, 경제외교 활용포털 참조.

< 2023년 중 주요국별 정상회담 계기 경제산업분야 협력 내용 >

상대국	시기	주요 내용
아랍에미리트	1월	- 주요 협력 체재 : 한-UAE 경제협력위원회 설립(에너지, 인프라, 항공우주, 보건·의료, 미래기술 등 4대 분야 협력 강화) 등 - MOU 등 : 13개 분야(포괄적 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십(CSEP)의 일환) 등 - 투자 등 : 총 300억 달러 투자 계획(에너지, 원전, 수소, 태양광, 방산 등 첨단분야 한국기업 대상)
미국	4월	- 주요 협력 체재 :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신설,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 등 - MOU 등 : 첨단산업 10건, SMR/청정수소 13건, 바이오헬스 10건 등 - 투자 등 : 총 19억 달러(한국의 수소, 반도체, 친환경 분야 투자 신고)
	9월	- MOU 등 : 한미 AI/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등
	11월	- 투자 등 : 총 11.6억 달러(글로벌 기업 4개사 투자 신고)
캐나다	5월	- MOU 등 : 핵심광물 공급망 청정에너지 전환·에너지 안보 협력 등
EU	6월	- 투자 등 : 약 9.4억 달러(첨단 6개 기업 투자 신고)
베트남	6월	- 주요 협력 체재 : 한-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 - MOU 등 : 코리아 플러스 인 베트남 및 베트남 플러스 인 코리아(2030년 양국 간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달성), 한-베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 설립, 한-베 파리협정 제6조 이행에 관한 양해각서,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UGPP)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한국토지주택공사-베트남 5개 지방성) 등 109건 및 계약 2건 체결 등
폴란드	7월	- MOU 등 : 한-폴란드 교통인프라 개발 협력, 한-폴란드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 외 33건 등
인도네시아	9월	- MOU 등 : 한-인니 원전/모빌리티 등 16건, 한-인니 할랄식품 및 농기계 기반시설 협력 등
사우디아라비아	10월	- MOU 등 : 한-사우디 수소 오아시스협력 이니셔티브 및 블루암모니아(155억 달러) 협력 의향서, 원유공동비축계약 등 5건, 식품/의료제품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등 - 투자 등 : 계약 2건 638억원(변전소 협력), 자푸라2 가스플랜트 패키지2 프로젝트 24억달러 수주,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운영 등
카타르	10월	- MOU 등 :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등 10건, 건설부문 국가 공간정보 협력 외 2건 등 - 투자 등 : LNG 선박 17척 39억달러 계약
영국	11월	- 주요 협력 체재 : 한-영 전략적 개발 동반자 관계(파트너십), 청정에너지 파트너십(한-영 해상풍력 협력 등) 등 - MOU 등 : 한-영 원전 협력 외 3건 등 - 투자 등 : 11.6억 달러(영국 2개 기업)

자료 : 경제외교 활용포털.

- (시사점) 정상외교 등을 포함한 세일즈 외교가 경제적 성과 창출은 물론이고 산업 및 기술, 외교, 군사 등 다양한 부문에서 국가 이익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후속이행조치와 모니터링 및 민관협력 강화 등을 통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